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10 장



지옥과 역사는 이제 강력한 바빌론을 오랫동안 괴롭혀 온 죄악처럼 서로 얽혀 있었다. 1331년, 중국 중부의 외딴 사원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그 사원의 가장 은밀한 비밀 속에서 죽은 새 한 마리가 루시파엘의 메시지를 온 땅에 전했다.

17년이라는 끔찍한 세월 동안, 부패의 악취가 신성하고 악의적인 독기처럼 몽골 왕국을 뒤덮었습니다. 흑사병은 악마의 병이었습니다. 대륙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루시파엘의 치명적인 혼합물은 광활한 아시아 왕국을 계속해서 오염시켰고, 1347년에는 죽음과 질병의 물결이 왕국의 최남단 해안, 흑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노바의 신생 항구 도시인 카파.

흑해 - 카파 - 1347년 10월

제노바인들이 극동과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해상 무역로를 발견한 후, 아시아의 항구 도시 카파는 제노바 상인들이 몽골의 실크로드에서 희귀하고 값비싼 상품들을 모아 유럽의 여러 왕국으로 수출하는 번성하는 관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1347년 말, 실크로드는 열정적인 제노바 상인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카파는 즉시 성문을 닫아 더 이상의 감염을 막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몽골인들이 수천 명씩 끊임없이 죽어갔다. 제노바 상인들에 대한 악평은 질병만큼이나 빠르게 퍼져나갔다. 서양 의 외국인들이 '사악한 기독교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저주의 근원을 걸었다는 소문이었다.

몽골 영토를 침공한 카파는 살아남은 군벌들이 뭉쳐 몽골 타타르족 군대를 결성하고, 식민지 괴물을 바다로 몰아내기 위해 요새화된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석궁병과 창병으로 이루어진 방어선과 뛰어난 전략 덕분에 카파는 크림 땅에 대한 영유권을 지켜냈습니다.

한때 고요했던 시골은 서서히 변해갔다. 가을 낙엽의 상쾌한 향기와 새소리가 울창한 숲을 가득 채우던 곳에 이제는 온갖 소음과 진동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점점 고조되는 전쟁의 냄새, 얼어붙은 땅 위를 울리는 발굽 소리, 가족, 땀, 쓰레기, 그리고 썩어가는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과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산발적이었던 도시 공격은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조직적이고 맹렬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노바인들은 3개월이라는 고된 시간 동안 몽골군을 저지했다. 마침내 복수심에 불타는, 비명을 지르며 돌격하는, 하지만 가장 명예로운 몽골군 병사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카파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1347년 봄, 날씨가 따뜻해지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꽃들이 만발하고, 제노바 사람들의 피가 성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식량과 견장한 인력이 부족한 고립된 주민들은 타타르족이 도시를 점령하기 직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세는 역전되었다. 타타르족은 다소 특이하고 어쩌면 신의 섭리였을지도 모르는 운명의 장난을 겪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루시파엘의 뜨거운 숨결이 몰려 오는 가운데, 역병이 마침내 타타르 군대의 진영에 침투했다. 단 며칠 만에 온 들판은 썩어가는 몽골인들의 시체에서 나는 악취로 가득 찼고, 사방 수 킬로미터에 걸쳐 썩어가는 인체의 악취가 공기를 오염시켰다. 비참함에 휩싸인 타타르 군주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군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온 군단이 부풀어 오르고, 검게 변하고, 질병으로 인해 몰살당했다.

타타르족이 새로 약해진 자신들의 처지에 낙담하고 부끄러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문화적, 종교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 어떤 생명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큰 존경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수 세기 동안 변함없는 세뇌로 굳어진 엄격한 사회적 관념에 눈이 멀어 있던 몽골 전사들은 오직 한 가지 삶의 방식과 한 가지 죽음만을 받아들였다. 몽골인들에게 삶과 죽음은 흑백처럼 분명했고, 존엄과 불명예에 대한 혼동은 없었다. 그들에게 전투에서의 죽음은 명예로운 것이었고,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온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영원히 잊히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었다.

부정한 혈통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안고 살아가는 생존자들.

많은 몽골인들이 열병에 걸려 미쳐버렸고, 그들은 가장 명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통받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대규모 자살 공격을 감행하며 카파 성벽을 향해 돌격했다. 싸울 힘조차 없는 낙오자들은 비틀거리며 성벽 앞에 서서 마치 의식용 시체 나 존엄성을 잃은 거지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고통을 멈추고 가족들을 피할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최후에서 구해줄 제노바인의 석궁을 간절히 바랐다. 어쩌면 암묵적인 속죄의 의미였을지도 모른다. 타타르 전사들은 도시 요새의 기슭에 몸을 던져 우세한 수적 우위를 파리떼가 들끓는 시체 더미에 내던졌고, 몽골 동료들은 그들의 가장 훌륭한 유해를 타고 성벽을 기어오를 수 있었다.

날이 저물고 해가 저녁 하늘 뒤로 지고 해안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어오자, 제노바 식민지 주민들은 수천 명의 입에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에 파묻혀 버렸다.

점점 심술 껌어지는 타타르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시를 사수하며 역병이 결국 몽골 대중의 의지를 꺾어버리기를 기도했다. 병력과 요새는 차치하고라도, 시간은 어느 쪽 군대에게도 아군이 아니었다. 제노바군은 새로 징집된 타타르족 전사들이 역병에 의해 죽어가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식량을 소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군대 모두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역사가 잘 알고 있듯이, 손자병법이 적용될 때마다 인간은 그저 버려지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손자병법은 지상의 창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신의 발명품이었으며, 지옥이 건설되기 전부터 천상의 천사 군단이 지상의 형제 자매들, 즉 파수꾼들과 그들의 지휘관들(열 명씩의 우두머리)에 맞서 무장했을 때부터 구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 자매는 특히 전쟁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천사처럼 루시파엘 또한 신의 가장 총애 받는 천사 중 하나였으며, 손자병법과 정복을 포함한 신의 위대한 계획 대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폴로가 다소 우아하게 은총에서 떨어진 것과는 달리, 루시파엘은 몰락 직후 창조와 파괴에 대한 예리한 지식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족을 상대로 더욱 효과적인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도구와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대포, 장궁, 갑옷을 뚫는 송곳 화살은 그녀의 사악한 조연의 은밀한 속삭임을 통해 고안된 최신 파괴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비밀을 속삭였고, 다시 한번 전쟁 기술은 루시파엘의 치명적인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도록 진화했다. 그녀가 죽어가는 타타르 군주들의 귓속에 사악한 속삭임을 주입하자, 그들은 알게 되었다.

그녀의 인간 말살 전략은 상당히 비열한데, 바로 세균전이다.

제노바인들을 몰아내기로 결심한 영주들은 루시파엘의 새로운 계시를 등에 업고 다음과 같이 나아갔다.

그들은 가장 큰 투석기 13대로 이루어진 함대를 소집하고, 군대에게 투석기를 던지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쓰러진 동료들의 오염된 시체를 폐쇄된 도시 한복판으로 던져 넣었다. 카파의 성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죽음의 기계들은 결코 쉬지 않았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전염병에 걸린 몽골인들이 제노바 도시에 쏟아져 내려 지붕을 뚫고 지나가며 아무것도 모르는 행인들을 짓눌렀다. 그토록 끔찍한 속도로 시체가 쏟아져 내려오자 식민지 주민들은 타타르족이 성벽 너머로 던지는 시체를 태울 수 없었다. 타는 머리 카락과 피부의 끔찍한 냄새가 썩어 가는 살 냄새와 뒤섞여 폐쇄된 정착촌을 숨 막히는 악취로 가득 채웠다. 지옥이 카파를 덮쳤다. 벚나무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두 번, 그리고 또 한 번 울었다.

포위당하고 식량도 거의 바닥난 카파는 가장 큰 원양 함선 13척으로 함대를 구성하고 신속히 출항할 준비를 마쳤다. 제노바의 선원, 병사, 상인들은 도시의 보물을 약탈하여 배의 화물칸을 값진 물건들로 가득 채웠다. 금과 은, 아시아산 옥과 정교하게 세공된 도자기, 무두질한 가죽과 모피, 가공되지 않은 보석과 희귀한 장신구, 그리고 향신료와 향수 통까지.

함대의 선체를 완전히 화물로 채운 후, 그들은 도시의 목조 건물에서 널빤지를 뜯어내고, 남은 화물을 수용하기 위해 배의 갑판을 더욱 높은 벽으로 둘러쌌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들이 모두 사라진 후, 열두 척의 배가 어둠 속에서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선원들은

제13연대는 뒤에 남았다. 도시를 살살이 불태우며, 그들은 후퇴하는 함대를 따라잡으면서 불타는 건물들의 맹렬한 화염만을 남겼다.

산타 고데베르타호는 13척의 톱니바퀴선 중 가장 크고 항해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거대한 기둥 모양의 가로보가 이중으로 보강된 클링커 판자 선체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높이 솟은 돛대와 돛대, 그리고 돛을 갖춘 이 배는 무거운 함대를 이끌고 제노바로 향했습니다. 선원들은 이후 갑판을 개조하여 카파 건물에서 가져온 판자를 사용하여 난간 위쪽에 솟아오른 벽을 만들었습니다. 거친 파도에 대비하여 금속 걸쇠로 밧줄 그물을 고정하여 과도하게 많은 화물을 갑판 위에 단단히 매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원양 상선보다 큰 이 배는 최신 건조품이자 제노바 조선소의 자랑이었다. 화물로 덮인 선미 위에는 U자형 갑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갑판 위에는 넓은 선수갑판이 곧게 뻗은 뱃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수십 톤에 달하는 카파 화물을 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거의 144톤에 달하는 물을 배수했다. 진정 바다의 괴물과 같은 배였다.

하지만 배는 텅 비어 있지 않았고, 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배의 아랫부분은 물에 푹 잠겨 있었고, 열두 개의 노 젓는 구멍은 파도를 감싸고 있었다. 카파에서 제노바까지 여덟 번째 항해였지만, 이번 항해는 그녀에게 가장 힘든 항해가 될 것이었다.

설계된 최대 용량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불행이나 계산 착오라도 발생하면 그녀와 스물네 명의 선원들은 바다 밑바닥으로 비명을 지르며 가라앉을 수 있었다. 이른 아침 별빛 아래,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타 고데베르타호는 무거운 짐을 실은 함대를 이끌고 잔잔한 흑해를 가로질러 고향을 향한 어두운 수평선으로 나아 갔다.

짐을 가득 실은 무역선 열두 척이 낮은 흘수선으로 무겁게 항해했고, 과도한 하중을 받은 선체 목재는 거친 파도에 부딪히며 삐걱거리고 신음 소리를 냈다. 보물로 가득 찬 선체에는 소금기와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갑판 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배에 탄 몇몇 아기들은 너무 약해서 울 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노바 식민지 주민들은 날아다니는 타타르족 사체들을 피해 모든 보물을 가지고 탈출했고, 시기심에 가득 찬 아시아 적들에게는 불타버린 땅만 남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탈출이 아무리 깔끔하고 쉬워 보였더라도, 그들은 천사의 개입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루시파엘은 역사에 관여할 때면 그 뿌리를 내리고, 종종 씩씩한 회고록으로 미래를 엮어 나갔습니다. 제노바 사람들은 카파에서 안전하게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루시파엘이 교활하게 미리 정해둔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항해를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함대원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 쓰러지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선원들은 사망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병든 선원들을 갑판 아래에서 격리했다.

그리고 그들은 배의 후미 부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을 벌었고, 감염자들이 배출한 배설물과 체액을 씻어내기 위해 소금물 양동이로 갑판을 뿌렸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료를 보다 배 갑판 아래에 숨어 있는 밀항자들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함대가 그들을 돌아섰을 때

이탈리아 최남단 끝자락에서, 산 사람보다 죽어가는 사람이 거의 두 배나 많았다. 카파를 불태워버린 선원들의 배는 함대에서 떨어져 나와 평평한 바다 수평선 너머로 표류하고 있었다. 12척의 배는 마치 끈질기게 떠다니는 관처럼 황량한 바다를 건너 앞으로 나아갔고, 오직 물살만이 그들을 앞으로 밀어냈다.

제노바 항구를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결국 절망감에 휩싸인 산타 고데베르타호는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지친 선원들이 돛대를 조작하고, 제노바까지는 아직 너무 멀어 항해할 수 없었기에, 배는 선수와 함대를 돌려 가장 가까운 항구인 시칠리아의 메시나를 향해 나아갔다.

겨우 12척의 근근이 움직이는 무역선에 피난민들과 몇 안 되는 죽어가는 선원들을 태운 흑사병 함대는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 유럽 해역을 항해한 가장 치명적이고 장비가 열악한 함대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바닷속에서

"지구 말이지." 루시파엘이 비웃으며 말했다.

산구

늦가을의 음울한 구름 뒤로 해가 저물면서 프랑스 중부에는 검고 계절에 맞지 않게 차가운 저녁이 드리워졌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다. 땅속 깊은 곳, 산구덩이 동굴 안에서는 소년의 힘겨운 숨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다. 옷을 입은 한 소년이 가파른 통로를 힘겹게 오르며 동굴을 향해 걸어 오고 있었다. 소년은 물통을 동굴 벽 근처에 내려놓고는 갑자기 꺼져가는 불에 시선을 돌렸다. 새 장작과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자 라자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두건은 밧줄 허리띠에 끼워져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소년의 더럽고 침울한 얼굴을 감쌌고, 그의 눈은 불빛 속에서 사파이어처럼 반짝였다.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입김 외에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의 눈동자만이 고요한 순간을 알리고 있었다.

나사로는 돌 위에 앉았다. 오래전부터 온몸에 스며든 냉기를 떨쳐내려 애쓰며, 그는 옷자락의 두건을 뒤집어쓰고, 발을 활활 타오르는 숯불에 올려놓고, 손을 따뜻한 불빛에 녹였다. 그러나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자, 라자루스의 눈동자는 푸른 원을 배경으로 바늘구멍처럼 작아졌다. 그는 동굴의 모든 한기를 집어삼키는 지옥 같은 열기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머리 위 높은 곳에서 주황색 빛깔과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수천 마리 박쥐의 뻥뻥한 덩어리 위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 수많은 박쥐의 눈들이 불빛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반짝이는 어두운 하늘.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위로 솟아올라 동굴 천장에 고였다. 박쥐 몇 마리가 날아올라 동굴 주위를 맴돌았다. 라자루스는 머리에서 후드를 벗고 입김이 사라졌는지 확인했다. 빠르게 따뜻해지는 동굴 안에서 더 많은 박쥐들이 움직였다.

소년은 모닥불에서 나와 불규칙하게 늘어선 계단식 바위 턱을 기어오르며 박쥐들을 주시했다. 동굴 위쪽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때때로 뒤돌아 더 높은 곳에서 박쥐들을 살피고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수많은 작고 검은 눈들이 그의 꾸준한 상승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박쥐들은 소년이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천장에 바싹 붙어 마치 라자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소년은 가장 높은 바위 턱 꼭대기에 올라섰다. 그는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수많은 눈들이 응시하는 동굴 천장을 살펴보았다.

"따뜻하니?" 소년 이 큰 소리로 물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소년의 갑작스러운 외침이 동굴 전체에 울려 퍼지자, 몇몇 박쥐들이 등지에서 떨어져 나와 이미 동굴 주위를 맴돌고 있던 다른 박쥐들과 합류했다. 더 많은 박쥐들이 뒤따라왔고, 동굴 안은 날갯짓 소리로 가득 찼다.

종합적으로 보면, 마치 그들이 차례로 식민지에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대중들은 마치 하늘의 심판관처럼 지켜보며 최신 시범자의 비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었겠죠. 설령 심판을 받고 있지 않았더라도, 라자루스는 비행을 선택한 자들을 분명히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소년은 옷을 벗었다. 허리띠와 발장갑만 낀 채 바위 턱에 굳건히 앉아 있었다. 그의 멋진 박쥐 같은 날개가 펼쳐지며 작은 스승들의 날갯짓을 흉내 냈다. 박쥐마다 날갯짓은 달랐지만, 라자루스는 비행할 때의 날갯짓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상승할 때는 날개를 오므리고 퍼덕이고, 갑자기 속도를 줄일 때는 날개를 단단하게 펼치고, 빠르게 하강할 때는 날개를 오므리는 것. 그의 눈은 주위를 번뜩였고, 날개는 공기를 가르며 움직였다. 박쥐 비행의 기술, 즉 박쥐 비행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와 필수적인 방법들을 꼼꼼히 생각하며 그의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렇게 그는 저녁 내내 동굴 동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새벽녘 한 시간 전, 박쥐들은 이미 작고 검은 눈을 감고 거꾸로 된 백일몽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나사로는 저녁 수업을 마치고 자리를 떴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춥고, 날개가 쑤시는 나사로는 옷으로 갈아입고 동굴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는 불을 지피고 식량 자루에서 음식을 꺼냈다. 마침내 그는 새로 타오르는 불꽃 앞 돌 위에 앉아 물주머니를 옆에 두고 납작한 빵과 소금에 절인 고기를 허겁지겁 먹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노란 눈이 빛났다!

“쉬익!” 나사로는 먹던 음식을 뱉고 돌에서 떨어져 뒤로 황급히 물러섰다. 동굴 입구 안쪽 칠흙 같은 어둠 속에 번뜩이는 한 쌍의 눈이 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마치 동굴 바닥 근처에 떠 있는 쌍둥이 달처럼, 그 구체들은 반사된 불빛으로 라자로를 비추었다.

“거기 누구세요?” 나사로는 귀를 쫓긋 세우고 눈동자를 크게 뜨고 간신히 물었다.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나사로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귀를 쫓긋 세워 희미한 냄새와 불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는 동물을 감지했다. 그 동물 역시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검은 멧돼지 한 마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통로의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나사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일어서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꺾꺾 웃었다. "이런, 너는 돼지로구나! 너 같은 놈은 책에서나 봤어!" 겁에 질린 멧돼지는 동굴 입구 쪽으로 몸을 돌리다가 멈춰 서서 나사로를 돌아보았다.

“오, 가지 마세요! 해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제 앉겠습니다.” 나사로는 돌에 조심스럽게 앉아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멧돼지는 나사로를 향해 돌아서서 몇 걸음 걸어가더니 멈춰 서서 냄새를 맡았다.

“배고프지?” 나사로가 물었다. 그는 발치에서 고기 한 조각을 집어 들었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썼다. "이리 와서 먹어." 멧돼지는 거리를 두었다. "먹어라." 나사로는 고기를 동물에게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던졌다. 동물은 나사로와 음식 조각 사이를 불안한 눈빛으로 번갈아 쳐다보다가, 마침내 앞으로 나와 냄새를 맡고는 고기를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다. 그러고는 마치 더 달라고 기다리는 듯 나사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너도 빵 좋아하니? 난 별로 안 좋아해. 너무 건조하거든." 나사로는 납작한 빵 덩어리를 크게 던졌다. 멧돼지는 그것을 잰싸게 집어 들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깐! 가지 마!" 나사로는 뒤쫓아갔다. 바깥 동굴에서 그는 동굴 입구 모퉁이를 돌아 바위 능선을 기어오르는 멧돼지를 발견했다. 언덕 위로는 붉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이른 아침 해돋이였다. 나사로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았다. 그는 발을 질질 끌며 동굴로 돌아갔다.

다음 주 동안 나사로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고, 날개에 힘을 충분히 주어 바닥에서 몸을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아직 자신의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너무 약했기에, 나사로는 동굴 바닥 돌 꼭대기 사이를 짧게 낮게 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자루스는 박쥐들과 같은 생활 패턴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박쥐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에 관찰했습니다. 밤은 서리가 내리면서 점점 추워졌고, 장작 더미가 줄어들자 그는 동굴을 나와 산구덩이 뒤편에서 나무를 모으러 갔습니다. 불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자 점점 더 많은 박쥐들이 동굴을 떠나 방해받지 않는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박쥐의 거의 4분의 1이 사라지자 라자루스는 박쥐들로 뒤덮여 있던 천장의 빈자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라자루스의 관심은 박쥐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확히 해가 뜰 무렵이면 멧돼지가 산구덩이에 나타나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시칠리아 - 메시나 항구

말끔하게 차려입은 시칠리아 소년이 해안가에 서 있었다. 갈매기 떼가 부서진 빵 조각을 낚아채려고 소년 주위로 몰려들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과 밝은 색 옷이 잔잔한 바람에 흔들렸다. 소년은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눈을 감고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그때 갈매기 한 마리가 소년의 손에서 빵을 낚아채 갔고, 소년은 팔을 확 잡아당기며 낄낄거렸다. 눈부신 햇살을 피해 손가락으로 이마를 가리고 남서쪽 수평선을 응시했다. 두 개의 점이 나타나더니, 곧 세 번째 점이 나타났다.

"엄마! 배가 네 척이나 있어요!" 소년이 어깨 너머로 바다 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다섯 척이나! 더 많아!

산타 고데베르타호는 대규모 상선단을 이끌고 메시나 항구로 들어왔다.

낮은 선미와 높은 뱃머리를 가진 배는 무너진 도시의 상당하고 값비싼 잔해를 가득 싣고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마치 유령선처럼, 버려진 갑판은 끊임없이 훑날리는 파도 물방울에 반짝였고, 항해를 지휘하는 선원은 보이지 않았다.

돛을 달았든, 배는 파도에 흔들리거나 휘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톤의 육중한 화물을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물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겨우 한 줌의 벼룩과 한 바구니의 쥐만이 그 화물의 무게를 실어 나르기에 충분했다. 쌀 한 자루보다도 가벼운 이 곤충과 설치류의 하찮은 짐은 수백만 명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유럽 왕국의 기둥과 돌을 부수고, 대륙 전체를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이었다.

수많은 보행자와 행인들이 부두에 모여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함대가 마치 가장 넓고 험난한 바다도 항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수백 명의 열정적인 소년들과 남루한 농부들이 부두에 줄지어 서 있었다.

항구 측은 밧줄 말뚝과 가장 가까운 드문 부두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화물 하역 작업을 위한 고용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다. 선박이 워낙 많으니, 하역 작업에 선발된 사람들은 며칠 치의 후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노동이 시작되었다. 남자들은 투덜거리며 서로 밀치고, 씨름하는 소년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격렬하게 움직였다. 사람들로 항구가 가득 차자 혼잡한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북적거리던 도시는 다가오는 함대를 지켜보기 위해 움직임을 멈췄다.

구경꾼들 모두에게 점점 더 명백해졌듯이, 부두는 그토록 거대한 함대를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대는 계속 전진하며, 점점 커지는 모습으로 수평선을 가렸다.

건장한 항만 선장과 그의 부두 대장장이 두 명이 혼잡한 부두가 내려다보이는 높이 솟은 통나무 제방 위에서 있었다. 초조해진 선장은 다가오는 배들을 향해 붉은 깃발을 흔들며 정박을 중단하고 배를 단단히 붙잡으라고 신호했다. "네, 선장님. 저 배들은 우리 배가 아닙니다. 아마 포르투갈 배일 겁니다." 부두 대장장이 중 한 명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른 짐꾼이 선장의 털복숭이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선장님."

남자는 깃발을 내리고 어깨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무장한 병사들이 군중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헬멧에서 반사되는 눈부신 햇빛과 길게 늘어선 대형의 전진은 마치 불덩이가 바다를 가르며 부두를 향해 뱀처럼 기어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굳건히 서 있는 함대에 시선을 돌려 필사적으로 깃발을 흔들며 인사를 시도했지만, 산타 고데베르타 함이 메시나 항구 외곽을 뚫고 들어오자 소용이 없었다.

선장의 걱정은 그의 항만 대장장이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났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거세게 항해해 오는 듯한 함대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다. 공해상에서. 이는 대형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관례이자 규칙이었다. 이 배들은 항구를 항해하는 동안 돛을 돛대에 단단히 고정하고 노를 저어야 했다. 그러나 산타 고데베르타 호의 돛은 절반만 돛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펼쳐진 채 바람을 맞고 있었다. 영킨 주 삭구 밧줄은 돛대와 돛대에 매달려 있었다. 세 개의 노만이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배의 속도를 줄이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선장님, 저 배가 우리 배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오고 있어요!” 항구 노동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뒤로 파도가 멀리 치고 있잖아요!” 그는 산타 고데베르타 호 바로 뒤를 바짝 따라오는 배를 가리켰다. 그 배는 돛을 활짝 펼친 채 노도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배는 마치 널빤지 위를 굴러 내려가는 통처럼 돛을 활짝 펼치고 있어요! 보세요, 선장님, 저 배는 돛을 활짝 펼치고 돌진하고 있잖아요!”

영업중입니다! 제가 전화드릴까요?
선장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깃발을 흔들며 이제 막 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함대를 향해 소리쳤다. “어서! 돛대를 모아라! 선수를 선미로 돌려라! 너희 배를 돌려라—”

배 한 척이 작은 어선을 들이받아 부서뜨렸고, 어선의 뱃머리에 엉켜 걸린 그물이 잔해를 끌고 갔다. 선장은 깃발을 내리고 조선소 대장간들에게 신호를 보내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그의 명령에 즉시 따랐다. 한 명이 몸을 돌려 매달린 금속 망치를 움켜쥐고 커다란 관을 울렸다. 다른 한 명은 귀청을 찢는 듯한 종소리 위로 고함을 지르며 팔을 휘두르며 군중에게 부두에서 비키라고 명령했다. 군중은 항구 가장자리에서 도망치려 허둥지둥 서로 밟으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 비명을 지르는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려 사방으로 흩어졌다.

메시나 시민들의 수많은 눈은 하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산타 고데베르타 호에 고정되었다. 거대한 뱃머리에서 끊임없이 물보라를 뿜어내는 배는 마치 좌초하려는 미친 바다 괴물 같았다. 항구 선장과 그의 부하 두 명은 부두의 널빤지와 말뚝들이 과적된 배의 무게에 짓눌려 산산조각 나는 순간, 감시탑에서 뛰어내렸다. 배의 충격으로 항구 전체가 휘청거렸다. 배가 좌초되면서 부서진 감시탑은 군중 위로 무너져 내렸고, 배는 병사들의 대열을 덮치며 해안가로 밀어붙였다. 산타 고데베르타 호가 병사들 위로 완전히 덮치자마자,

두 번째 배가 항구로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 들어와, 앞선 배의 후미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가며 선미 우현 모서리를 긁어낸 후,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좌현을 항구에 들이받으며 거대한 목조 부두를 산산조각냈다. 다시 한번 항구는 굉음을 내며 충돌과 어리둥절한 시민들의 비명 소리에 휩싸였다. 열 척의 배가 더 다가왔다.

배들이 항구로 밀려들어오면서 마치 거대한 나무와 밧줄, 돛으로 이루어진 벽처럼 만을 집어삼킬 듯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돛대나 갑판 어디에도 선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메시나 항구는 마치 유령선으로 이루어진 침략 함대에 의해 포위된 듯 보였습니다.

신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항구 부두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해안선에 파편 더미처럼 쌓여 있는 와중에도 두 배의 선체는 온전히 남아 있었다. 그 뒤로 열 척의 배가 더 만으로 들어와 마침내 멈춰 섰다. 초대받지 않은 배들의 거대한 무리 속에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날뛰는 곤충처럼 허둥지둥 움직였다. 항구는 아수라장이었다. 산타 고데베르타호의 뱃머리가 육지에 갇히자, 항만 책임자와 경비병들은 배의 앞갑판으로 기어 올라갔다.

상의를 벗은 채 땀에 흠뻑 젖은, 병약해 보이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선창에서 나왔다. 그는 가까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갑판에 주저앉았다. 그는 술 취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구부정하게 숙였다. 선원이었다. 그의 눈 밑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마치 멍든 것처럼 보였으며, 손가락 끝도 마찬가지였다. 항만 경비병들이 그를 에워싸고, 다른 사람들은 배의 화물칸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선장은 머리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돛을 풀어라! 이 배는 그대로 있어야 한다!" 몇몇 조선공들이 돛대에 올라갔다. 그는 땀에 젖은 남자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이 배의 선장은 어디 있느냐?" 그는 선창 입구를 향해 돌아서서 고함쳤다. "선원 전원 갑판으로 나와라! 모두 끌어올려라!" 그리고 다시 더러운 남자에게 돌아섰다. "이 함대를 지휘하는 자는 누구냐?"

그 남자는 고열에 시달리며 혼미한 상태로 이렇게 대답했다. "선장도 없고, 함대도 없다. 오직 바다뿐이다. 바다는 죽은 자들을 모두 삼켜버린다. 모두 다."

항구 세공사 선장의 귀에 속삭였다. "저 사람 술에 취했나 봐요, 틀림없어요."

항만 책임자는 심문을 계속했다. "이 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함대는 제노바로 향하는 배죠?" 그는 쌓여 있는 화물을 훑어보았다. 다른 배들의 갑판도 슬쩍 보았다. "당신네 배들은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짐을 실었군. 어떻게 배들을 띄워 놓았는지 신만이 알겠지. 이 모든 화물은 어디서 구한 겁니까?"

그 남자는 간신히 "배는 산타 고데베르타호이고, 카파에서 제노바로 가는 배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선장은 부하 두 명에게 "저놈을 일으켜 세워. 바람 좀 쐬게 해 줘." 라고 명령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부하에게는 "물 한 양동이를 길어와. 정신 차리게 해 줘."라고 말했다. 선장은 고개를 저으며 "카파— 이런 짐을 싣고?"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갑판 거의 모든 곳을 뒤덮은 묶인 화물들을 훑어 보다가 통 사이로 재빨리 움직이는 검은 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팔짱을 꼈다. "천 년이 지나도 안 돼."

"선장님!" 배의 화물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에는 겨우 다섯 명밖에 없는데, 화물칸이 너무 꽉 찼습니다." 선장은 화물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한 남자가 입구에서 나와 이마의 땀을 닦으며 말했다. "대위님, 이 사람들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업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명의 경비병이 더러운 선원의 팔 아래로 손을 뻗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악!"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힘없이 쓰러졌다. 깜짝 놀란 경비병들은 그를 갑판에 내팽개쳤고, 의식을 잃은 남자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엎드려 있었다. 그의 거드랑이에는 썩은 사과처럼 검게 부어오른 덩어리 두 개가 드러나 있었다. 터진 덩어리에서는 고름과 검은 피가 섞인 액체가 흘러나와 갑판 위에 흥건히 고였다. 경비병들은 바지 자락으로 팔을 닦았다. 역겨운 냄새가 피어올랐다.

잠들어 있는 선원. 선장은 그의 코와 입을 손으로 가리고 뒤로 물러섰다. "하느님 이름으로!"

그러자 그는 돌아서서 고함을 질렀다. "배에서 내려라!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전염병이 배에 퍼졌다!" 경비병들이 배의 뱃머리로 달려가는 동안, 조선공들은 돛대를 타고 내려갔고, 몇몇은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 직후, 12척의 배는 모두 항구에 단단히 고정되었고, 수백 명의 무장 병사들이 배에 오르거나 내리려는 자는 누구든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경비를 섰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오염된 배에 대한 소문이 메시나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둘째 날, 선원들은 의사들을 배에 태워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 당국은 의사가 일단 배에 오르면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 하에만 동의했습니다. 시의 의사들 중 누구도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항만 관리들은 밧줄에 매달린 양동이에 식량과 물을 담아 배로 보냈습니다. 양동이 가 비워지면 배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들을 격리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죽음의 악취가 부두 위로 퍼져 나갔다. 바닷바람을 타고 내륙까지 밀려온 악취였다. 의사들의 경고에 따라 경비병들은 바람이 배의 전염병을 옮길 것을 두려워하여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비병들이 배에서 멀어지자 부두에는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갈증에 시달리던 쥐들은 용기를 내어 배의 밧줄과 계류줄을 타고 부두로 기어 내려왔지만, 곧바로 다른 부두 쥐들과 합류하기 위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많은 경비병들이 병에 걸렸다. 분노한 군중이 항구에 모여들었고, 시 당국은 배들 이 불타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12척의 배를 화물과 함께 모두 항구 밖으로 내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제노바, 마르세유, 코르시카, 사르디니아에서 온 선원들은 손쉬운 이익과 다른 유럽 항구로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보고, 배를 항구 밖으로 내보내 여러 해안 도시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함대의 귀중한 화물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항구는 배들을 바다로 내보냈다. 그러자 곧바로 검은 배가 나타났다. 죽음의 함대는 해체되었고, 대부분의 배들은 제노바가 아닌 다른 항구로 향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던 갑판은 텅 비어 있었다. 승객과 선원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씩 바다에 던져버렸고, 결국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메시나는 이미 파멸의 길에 들어선 상태였다. 제노바 선박들은 항구에서 철수했지만, 게이트스톤 역병은 부두 아래 그림자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감염된 부두 쥐들의 등에는 질병을 품은 감염된 벼룩들이 가득했다. 그들의 위장은 마치 지옥의 작은 자궁처럼, 온갖 악마의 독약을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악마의 악행은 점점 더 심해졌다. 몇 주 만에, 나사로의 사악한 어머니는 메시나의 모든 주민들을 죽음으로 가득 찬, 탐스러운 검은 사과나무로 변모시켰다.

그녀가 털을 뽑는 모습.

그리하여 대역병은 항구에서 시작되어 내륙으로 휩쓸고 지나갔고, 도시는 폐허만 남았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서 역병은 거센 불길로 번져 나갔습니다.

산구

라자로가 처음 산구에 도착한 지 3주가 넘었다. 그동안 그의 몸은 근육질로 단단해졌고, 팔다리에서 빠졌던 살은 이제 더 탄탄해진 날개 근육으로 옮겨갔다. 바닥 돌 사이를 짧게 날던 비행은 더 높은 고도에서 더 오래 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벽을 타고 지붕 근처의 돌 턱으로 올라가지 않고, 곧장 날아갔다. 장작을 모으는 것도 산구 뒷면을 돌아가는 대신, 정상을 넘어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탈리아 수도원까지 가는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장작을 모으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힘이 드는 짧은 비행조차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레온 만을 건너 코르시카 섬으로, 또는 코르시카 섬에서 이탈리아 본토로 가려면 적어도 반나절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북쪽에서 매서운 추위가 끊임없이 불어왔다. 돌로 이루어진 계곡은 전날 밤 진눈깨비로 인해 얇은 얼음막으로 덮여 반짝거렸다. 동굴 안에는 나사로가 누워 있었다. 꺼져가는 불 옆에 웅크리고 잠든 그의 규칙적인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 안개를 만들어냈다. 그에게는 천장의 절반이 텅 비어 있었고, 박쥐들은 뒤쪽의 더 높은 지붕에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동굴.

라자로는 신음하며 몸을 더욱 웅크렸다. 여전히 잠든 상태였지만, 그의 귀는 쫓긋 세워져 동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새로운 소리를 찾았다. 그는 눈을 살짝 떴다. 그의 커다란 동공은 푸른 눈동자 위에 검은 점처럼 작아졌다.

"돼지?" 그는 소리치며 천천히 앉았다. 그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하품을 했다.

그는 얼굴을 문지르며 말했다. "너니?" 그러자 콧방귀 소리가 대답했다. "지금은 안 돼, 돼지야. 난 기진맥진해."

나사로는 어둠 속을 더듬어 찾아보니 멧돼지가 그의 식량 자루를 뒤지고 있었다. "돼지 같은 놈! 안 돼!" 나사로는 벌떡 일어나 멧돼지에게 달려갔다. "저리 꺼져!" 멧돼지는 통통한 호박을 입에 문 채 자루에서 머리를 들었다. 멧돼지는 껍껍 소리를 지르며 호박을 물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설마 그럴 리가!" 라자로는 더듬거리며 자루 안의 내용물을 미친 듯이 뒤졌다. 그는 피가 담긴 병을 꺼내 살펴보았다. 옆면에 가느다란 금이 간 것을 제외하면 병은 멀쩡하게 밀봉되어 있었다. 안도한 그는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라 자루를 살살이 뒤져보았다. 멧돼지가 그의 음식 부스러기 하나까지 훔쳐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돼지 같은 놈!" 그가 소리쳤다. 라자로는 자루에서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 물병과 자신이 가까이 두어야 할 중요한 물건들을 넣었다.

그는 지갑을 들고 꺼져가는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왜 그랬어?" 그는 지갑을 옆에 내려놓고 새 장작으로 불을 지폈다. "내가 너랑 음식을 나눠 먹었잖아!" 그는 활활 타오르는 불씨 위에 장작을 더 던지고 동굴 입구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 까지 울려 퍼졌다.

안개를 뚫고 울리는 종소리처럼 동굴 속 빈 공간을 통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쥐 몇 마리가 날아올라 동굴 주위를 맴돌았고, 타다 남은 장작들이 활활 타올랐다. 나사로는 불길 속에서 노려보았다.

산구릉에는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가운데 또 한 주가 흘러갔다. 그동안 라자로는 옷자락을 찢어 날개가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 그리고 다시 가면을 썼다. 얼어붙지 않고 산구릉 꼭대기를 오랫동안 둘러보면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 덕분에 그는 거의 세 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 시간으로는 바다를 건너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식량도 없는 라자로는 결국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매서운 추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는 동굴로 돌아가 자신의 약속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이른 아침이 밝아오자 수많은 별들이 붉은 하늘 속으로 가라앉으며 사라져갔다.

동굴 안에서, 무기력해진 라자로는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머리를 기대었다. 그는 거의 텅 빈 천장을 내려다보았다. 박쥐는 겨우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누워 수도원으로 다시 날아갈지, 아니면 밤중에 몰래 빠져나와 부엌에 필요한 식량을 채워 동굴로 돌아갈지 고민했다.

그는 공기를 킁킁거렸다. 익숙한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그의 속이 울렁거렸다. 나사로는 바닥을 기어올라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리고 날개를 펼쳐 하늘로 솟구쳤다. 그는 동굴 안쪽을 맴돌며 통로 입구를 찾았다. 나사로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멧돼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나사로의 빈 식량 자루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리고는 머리를 자루 입구 안으로 집어넣었다. 나사로는 돌을 들고 뛰어들어 멧돼지의 머리를 맞혔다. 멧돼지는 비명을 질렀고, 천장에서는 박쥐들이 쏟아져 나왔다.

멧돼지는 비틀거리며 동굴 밖으로 나왔다. 굶주림에 휩싸인 나사로는 돌을 들어 올리고 멧돼지를 쫓았다. 돌은 함께 동굴을 빠져나와 돌 골짜기를 가로질러 달렸다. 나사로는 능선 꼭대기를 넘어 동쪽 경사면을 기어 내려가면서 꺾꺾거리는 멧돼지를 따라잡았다. 방향 감각을 잃은 멧돼지는 멈춰 서서 나사로에게 달려들어 송곳니를 휘둘렀다. 바로 그 순간, 나사로가 던진 돌이 명중했다.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숨이 차고 지쳐버린 나사로는 돼지의 뒷발굽을 잡고 능선을 따라 동굴 쪽으로 끌고 올라갔다. 능선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곤경을 깨달았다. 그는 얼굴을 들어 떠오르는 듯한 붉은 새벽빛을 바라보며, 해가 떠오르는 순간 자신이 동굴 바로 밖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돼지를 능선 너머 그늘진 비탈길로 다시 끌어내렸다. 나사로는 힘겹게 돼지를 마른 강바닥을 가로질러 끌고 가며, 눈을 헤치고 동굴 쪽으로 길을 냈다. 눈이 돼지 위로 쌓여 아직 따뜻한 털 속으로 녹아 들었다. 시간은 벌떼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해는 더욱 높이 떠올랐고, 별들은 이제 그 불길에 가려졌다. 햇볕에 탄 피부가 가려웠지만, 나사로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고통을 무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동굴 입구에 이르러 멧돼지를 어두컴컴한 동굴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이었다. 작열하는 햇살의 첫 줄기가 지평선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사로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축축하고 무거운 짐승을 더욱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고 잡아당겼다. 돼지의 뒷부분 라자로의 다리가 동굴 바닥의 바위에 걸렸고, 그는 간신히 다리를 빼냈다. 그는 일어서서 또 한 번의 당김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미줄 보다도 가는 붉은 빛줄기가 멀리 떨어진 동쪽 능선 꼭대기의 틈새를 뚫고 들어왔다. 그 진홍빛 줄기는 돌로 이루어진 계곡을 가로질러 동굴 입구로 들어갔다.

동굴 안으로 들어온 빛줄기는 멧돼지의 젖은 뒷발굽에 부딪혀 방향을 바꾸었고, 멧돼지의 발을 타고 위로 솟아올라 마침내 나사로의 눈을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소년은 멧돼지를 놓아주고 온몸을 그림자 속으로 던졌다. 그는 몸부림치며

마치 화난 말벌 떼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동굴 바닥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오."

맙소사! 아! 아!

유황 냄새 나는 연기와 회색 재가 그의 온몸에서 솟구쳐 올랐고, 먼지 섞인 노란 연기가 동굴 바닥에 엉겨 붙었다. 그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팔을 허우적거리며 겨우 일어서서, 마치 방향 감각을 잃은 돼지가 동굴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것처럼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라자로가 통로를 지나 동굴의 가장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갈 때마다 노란 재가 그의 뒤를 따라 퍼져 나갔다.

"맙소사! 쇠!" 그는 주저앉아 임시로 만든 식량 자루 위로 굴러떨어졌다.

"끼익!" 놀란 박쥐들이 천장에서 쏟아져 나와 그의 위를 맴돌았다. 이제 박쥐들은 동굴 바닥을 뒹굴고 할퀴며 그에게 자루를 덮어씌우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움켜쥐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움직일 수도, 할 수도 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지압도, 기도도, 약속도, 이미 태양에 그을린 기괴한 형체에게는 이미 시작된, 흔들림 없는 사건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형체는 식량이 든 자루를 뒤집어쓴 후, 한쪽 팔로 몸을 지탱하며 똑바로 앉았다. 울부짖는 얼굴은 천장을 향해 치켜들었고, 점점 더 단단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얼굴은 떨리며 마지막 신음 소리를 냈다. "아버지!" 핏기가 가시고 화강암처럼 회색빛의 딱딱한 표면만 남았다.

안개가 걷히자, 죽은 나사로의 정교한 조각상이 남았다. 그의 뼈 조각들로 변해 있었다. 조각상이 기울어지더니 쓰러졌고, 돌처럼 굳은 한쪽 팔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으며, 손가락은 마치 부르짖었던 아버지께 손을 뻗는 듯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조각상이 사라졌을 때 먼지와 누런 모래가 가라앉자 동굴은 대체로 깨끗하고 지하 묘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가끔씩 쫓겨난 박쥐가 날갯짓하는 소리, 활활 타오르는 불꽃, 그리고 먼지와 재로 뒤덮인 기사들의 예복이 걸린 화강암 돌만 눈에 띄었습니다.

[제10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